



中國電機工程學會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 다녀와서

-학술·기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회장 이동호, 부회장 박상희, 사무국장 진동신*(기록)

우리학회는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외국학회와의 협력을 증진코자 中國電機工程學會(中國電機工程學會) "學術·技術交流協定"을 체결하고, 창립 60주년을 맞아 중국전기공업연합회 대표단 파견 공식초청을 받아 李東浩 회장, 박상희 부회장, 陳東新 부회장 3인외 대표단 2인 등 총 5인으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中國北京을 방문하여 中國電機工程學會 창립60주년 기념식, 중국전기전시회 등을 참관하고 이동호회장은 中國 Feng Xiang 회장과 양국 학회회장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學術 및 技術交流協定"을 정식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였다. 여기에 우리 일행이 中國北京을 다녀온 여행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中國學會와 교류를 추진하다

우리학회는 일본에 이어 몇년전부터 우리나라와 이웃해 있는 중국과의 교류를 추진하여 오던중 지난 3월 일본 東京에서 열린 日本電氣學會 全國大會에 중국대표로 참가한 中國電機工程學會 Zhang Shao Xian 부이사장(중국전력기업연합회 이사장)과 비공식 접촉을 갖고, 지난 5월 中國 측에 금년도 우리학회 하계학술대회기간에 중국대표 초청과 아울러 양국학회의 교류협력을 제의하였다.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7월초 중국전기공정학회로부터 우리의 초청을 수락하는 내용의 서신을 Fax로 접수하고 여러차례에 걸쳐 서신교환후 7월 하계학술대회(7.21-23, 경주조선호텔)기간을 전후하여 中國電機工程學會 Zhang Feng Xiang 회장, Huo Hong Lie 부비서장, Zhao Shuang Ju 북경공전국장 3명의 대표가 7.20~7.28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갔다.

방한기간 우리로서는 친절을 다하여 그들을 안내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한 신뢰감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9월초에 中國學會로

부터 서신이 접수되었다. 10월 22일에 中國電機工程學會의 창립 60주년기념행사가 개최되는 바 양국 학회간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우리학회 이동호 회장을 비롯 3명의 대표를 중국에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였다. 우리는 제9차 이사회에서 이사실을 보고하고 中國訪問代表團으로 李東浩 회장, 박상희 부회장, 陳東新 사무국장 3인으로 구성,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中國을 방문하였다.

우리 代表團은 10월 20일(목) 09:10 김포공항발 Asiana OZ 3155호편으로 출국 약 3시간 후인 11:30분(우리나라시간은 12:30분으로 중국이 한시간 빠르다.) 중국 천진공항에 도착하였다.

우리나라와 中國은 이미 지난 92년에 정식 국교가 수립되었지만 아직 항공노선은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제주도를 지나 남쪽으로 내려와서 U턴하여 上海를 거쳐 북상하는 2,000km에 달하는 비행노선으로서 그간 양국간의 항공협정으로 아마도 95년초에는 서울-北京, 서울-天津, 서울-上海 직항로선이 개통될 것으로 알고 있다.

天津공항에 도착하니 中國學會측에서 지난 7월 우리나라를 다녀갔던 北京工電局 Zhao Shuang Ju 局

장이 마중을 나왔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中國學會측에서 준비한 최신형 승용차(벤츠 600, Audi 6 기통)에 나누어 타고 北京(Beijing)으로 향하였다.

天津-北京간의 약 140여km 고속도로를 약 1시간 반정도 달려 北京시내 변화가인 CVIK호텔에 도착 여장을 풀고, 잠시후 호텔 Coffee Shop에서 Zhao Shang Ju 북경공전국장과 우리의 北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국제심포지움 및 국제 전시회를 참관하다

中國電機工程學會의 創立60周年 記念行事는 人民大會堂에서 記念式을 비롯하여 94.10.18~24까지 北京市에서 國際會議, 展示會등이 다음과 같이 성대히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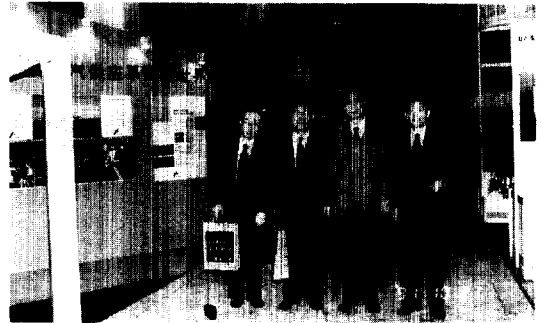
1. 창립 60주년 기념식 : 10.22(토) 인민대회당
2. 국제학술회의 : 10.18~21. IEEE와 Join
3. 국제전시회 : 10.21~24
4. 학술보고회(심포지움): 10.22~23

첫날의 공식일정으로 저녁 6시 중국전기학회 창립 6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의 리셉션에 참석하는 일로서 우리일행은 그사이 잠시 시내에 있는 北京古觀象台와 박물관에 견학을 가서 고대의 해시계, 물시계 등 中國 古代의 천문학의 발달사항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호텔에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저녁 6시 중국학회창립 6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미국전기전자학회(IEEE)PES Society와 Join하여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의 휘날레인 리셉션에 참석하였다. 중국학회측의 안내로 2층 접견실에 Zhang Feng Xiang회장을 비롯 中國電力工業部 Wang Shuchen 副部長(次官)등과 인사를 교환하고 日本, 파키스탄 대표단과도 인사를 교환하였다.

리셉션이 열리는 1층 대형 연회장에는 10여명씩 앉는 대형원탁으로 배열되어 미국 IEEE PES회장을 비롯 한국 일본, 영국, 호주, 파키스탄 등 각국 대표와 산업체 대표, 발표자, 참가자등 600여명의 많은 인사가 자리를 꼭 매웠고, 우리는 이자리에서 우리학회 前會長(89~90년)이신 서울대 朴永文교수(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장)를 비롯한 韓電기술연구원 추진부 박사등 국내에서 참가한 발표자 10여명과 반가운 상면을 하였다. 연회는 전통 고유 중

국악기의 연주와 유명 가수의 흥겨운 여흥속에 약 2시간동안 화기에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제2일째인 10월 21일(금)에는 Zhao Shuang Ju 국장의 안내로 北京시내 국제종합전시장 1,2층에서 열리는 중국전기공정학회 창립 6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인 國際展示會를 참관하였으며 2층의 국제전시장에는 GE, Westinghouse, Siemens, ABB, Alstom 사등의 세계 우수 대 Maker들이 自國의 기술과 상품을 소개 홍보하고 있었고, 거대 中國市場을 개척하려는 경쟁의식을 전시회를 통하여 입을 수 있었으며 유명회사 전시장에는 많은 참관인들이 카달로그, 팸플렛, 안내장등, 특히 고급쇼핑백을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층에는 中國 국내 업체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참가 업체의 booth가 2층의 국제전시회장의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다소 초라한 감이 없지 않았다.



국제전시회참관(10.21 北京)

그런데 국제전시회에 日本의 Maker가 한 업체도 참여치 않은 것을 보고 의아해 했는데 일본사람들은 약삭빠르기 때문에 구라파나 美國의 유명 Maker들이 참가한 때는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편 日本이 너무 앞서가고 약삭빠른 상술 때문에 미움을 사는 경향도 있고, 中國으로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美國, 구라파계통의 회사들과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소 이를 견제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 한다.

우리일행은 모처럼 展示會를 뜻깊게 참관하고 中國電力企業聯合會 임원들과 잠시 환담을 나눈 후 중국학회측에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마련한 韓國 음식점 “大明閣”에 들러 “불갈비”와 “김치”로 점심

을 끝내고 한국어 안내자인 Beijing Sony사무소에 근무하는 金正淋(조선족 3세 中國人)과 동행하여 中國이 자랑하는 古宮으로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中國최대의 고건축이자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라 할 “紫金城”을 관람하고, 中國 明·清양대의 황제들이 제사를 지냈다는 天壇公園을 견학하였다. 北京최대의 “紫金城”은 明의 永樂皇帝가 1406년부터 1420년까지 14년간에 걸쳐 건조하였으며, 東西 750m, 南北 960m, 면적은 72만㎡로서 약 22만평이나 되는 방대한 면적에 900여채의 건물에 9,900여개의 방이 있고, 이 건물을 짓는데 10여만명의 丈人和 100만명의 일꾼이 동원됐다고 한다. 南門인 午門에서 北門인 神武門까지 통과하면서 古宮내의 건물들과 전시돼 있는 유물들을 관찰하면서 거대 中國의 면모를 읽을 수 있었으며 中國皇帝의 位相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였는가를 새삼 일깨우게 하였다.



紫金城에서 기념촬영(10.21 北京)

저녁에는 효성물산 中國지역 본부장과 北京지사가 호텔로 이동호 회장을 인사차 찾아와 자금성 바로 서북쪽에 자리잡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北海公園 안에 있는 Fangshan 飯莊에 가서 전통 北京 宮中料理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北海公園은 호수가 약 12만평이고 나머지 약 10만평이 육지로 되어 있는데 中國의 옛 皇室庭園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곳으로 9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유적지이다. 漢武帝는 장안의 궁성뒤편에 큰 연못을 파도록 하고 연못을 팔때 나온 흙으로 연못안에 3개의 人工 山을 만들었다고 한다. 대륙인의 기질이 얼마나 장대한가를 깨닫게 하는 바가 크다.

◎ 人民大會堂의 창립60주년기념식에 참석하다

셋째날인 10월 22일(토)도 역시 北京工電局 Zhao Shuang Ju 局長이 친히 호텔로 마중을 나와 中國정치의 일번지인 天安門광장 앞 人民大會堂에서 열리는 中國電機工程學會 창립 60주년記念行事에 초대되어 참석하였다.

당일 인민대회당의 출입은 통제가 심하였으나 우리일행은 그대로 통과하였고 행사장인 인민대회당 3층 제3회의실에 들어서니 中國電機工程學會 Zhang Feng Xiang 理事長을 비롯 Huo Hong Lie 부비서장 등이 반갑게 우리를 영접하여 주었다.

우리는 외국대표단 접수 방명록에 서명하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會議場에는 이미 1,000여명의 중국 전기계 관련인사들이 자리를 꽉 메웠고 우리학회 대표단을 비롯 미국, 일본, 영국, 파키스탄, 홍콩 등 8개국의 學會代表團이 참가하였으며 단상에는 中國電機工程學會 會長(이사장)을 비롯 부주석, 電力工業部長(長官), 華北電力集團理事長, 電力企業聯合會會長, 中國電工技術學會會長과 中國 전력기업관계 관련단체 회장, 이사장 등 官界, 產業界, 學界의 대표적 인사와 外國學會代表로 우리학회 李東昊會長을 비롯 각국 대표단장이 자리를 하였으며 특히 단상 좌우에는 中國 江澤民國家主席과 李鵬總理를 비롯 각부 長官으로부터 학회발전과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내용의 친필 휘호액자가 진열되어 있어 中國에서 中國電氣學會의 位相을 새삼 실감할 수 있게 하는 바가 컸다. 현재 중국의 당, 행정부에서 실권을 갖고 있는 이봉총리 등 실세3인이 모두 電氣工學을 전공한 분들로서 中國에서는 기술관료들이 각방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국이 공업입국과 기술선진화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많은것을 느꼈다.

記念式은 10시에 시작되어 12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우리학회 李東昊會長은 외국학회대표사절로서 약 5분간 中國電機工程學會의 創立 60周年을 축하하는 祝辭를 하였다. 성대한 기념행사가 끝나고 바로 옆방의 대연회장에 마련된 푸짐하게 차린 전통 중국(뷔페)음식을 들면서 상호 화기애애한 정담을 나누었고 우리는 마침 같은 테이블에 日本電氣學會 代表團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 여러가지 東洋 3國의 漢字圈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정담을 나누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7월 東京에서 韓·日·中·홍콩 4개국 학회 참가대표가 서명한 도쿄 선언에 의거 95년도 우리학회 주최의 “제1차 電氣工學 國際學術大會의 日本측 Co-chairman인 北海道大學 Jun Hosokawa교수를 만나게 되어 내년도 국제회의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어 더욱 의의가 깊었다.

또 한가지 이날 기념행사장에는 참석한 인사 대부분이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지난 3월의 日本電氣學會 全國大會 참가시에도 느꼈지만 발표장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지한 자세를 볼 수가 있었다.’

◎ 이동호 회장 특별강연하다

오후에는 10월 22일~23일양일간 國濱飯店Hotel에서 열리는 中國電機工程學會 創立 60周年記念 學術報告會에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李東昊會長은 “우리나라 電力事業의 現況”이란 주제로 약 25분간 특별강연을 하여 참석회원들의 열렬한 환영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발표회는 中國 電力, 電氣분야 官界, 產業界, 學界의 중진급인사들의 심도있는 주제 발표자리로서 참가자 대부분이 40~50대 이상의 중진, 원로급인사들이었다. 강연이 끝나고 우리일행은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과 같은 北京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핵심 전력회사인 華北電力集團의 華北電力調度局(우리나라의 韓電 중앙급전지령소)을 방문하여 Gao Ren Tang국장의 안내로 중국 화북지역의 전력설비용량, 송배전시설현황 등 電力事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中國은 현재 電力이 不足한 형편으로서 北京시내의 야경은 가로등과 고층빌딩, APT 등 대부분이 어둠침침한 조명으로서 電力 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華北電力集團公司의 設備容量(’92년)은 2,152萬 kW이고, 發電量은 1,080억 kWh이며, 1993년도 中國의 總電力 設備容量은 1억 8천만 kW인데 그중 石炭火力가 대부분으로 약 75.6%인 1억 3,700만kW이고, 水力이

24.3%인 4,400만kW로서 구성되어 있고, 연간 총 발전량은 총 8,160억 kWh로서 火力이 6,700억 kWh이고 水力이 1,460억 kWh라고 한다.

◎ 만리장성에 오르다

넷째날인 10월 23일(일)에는 꼭 짜인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일행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세계 8대 불가사의 구조물의 하나인 “萬里長城”을 관람하였다. 中國學會측에서 마련해 준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약 1시간 30분 정도 달려 北京 서북쪽 약 75km 거리에 위치한 관광지로서 잘 개발된 “八達嶺”을 가 보았다. 외국관광객을 비롯 中國인 내국인들이 입구부터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렸다. 흔히들 萬里長城이라고 하지만 실제 길이는 1萬里가 훨씬 넘는 1萬 2千里정도(약 6,350km)라고 하고, 東쪽에서 西쪽까지 7개의 省과 市, 自治區를 통과하는 거대한 면적에 축성되어 있다고 한다.

“萬里長城”은 기원전 5세기경부터 여러 왕조들이 외적을 막기위해 축조한 성벽으로서 전국시대에 趙나라, 燕나라등이 부분적으로 축성해 놓은 것을 최초로 中國을 통일한 “秦始皇”이 흉노등 변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해 대부분 증축, 완성하였다고 하며, 특히 명나라때는 몽골의 재침입을 막기 위하여 증축, 개축에 힘썼는데 현재의 城은 대부분 명나라 때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



萬里長城 “八達嶺”에서(10.23)

흔히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人造物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萬里長城”은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일꾼이 성벽을 쌓다 죽으면 그 자리에 묻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만리장성의 벽돌하나하나에 전부 이름이 새겨 있는 것을

봤는데 처음에는 관광객들이 다녀간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애꿎게 낙서같은 것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였으나, 알고보니 만리장성을 쌓을 때 백성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가 심혈을 기울려 만들어서 바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한다. 그때 만들어바친 벽돌이 불량으로 부서지거나 망가트러지면 그 사람은 그자리에서 목을 쳤다고 한다. 그러니 성곽에 쌓은 벽돌 한장 한장이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으므로 얼마나 정성을 드려 튼튼하게 구워내서 만들어 겹짚는가를 생각하니 마음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돌아오는 길에 明13陵에 들렀다. 13릉은 明나라 3대 永樂 황제 7년(1409년)부터 마지막 崇禎 황제 17년인 1644년까지 230여년에 걸쳐 막대한 인력과 물자가 동원되어 건조된 13개의 무덤으로서 13명의 황제, 23명의 황후, 1명의 귀비가 묻혀 있는 皇帝·皇后의 무덤들로서 그 면적만도 약 40km에 달한다고 한다. 13릉이라고 하지만 일반에 공개된 곳은 定陵과 長陵 두곳뿐인데 대부분 定陵(Tingring)을 보게 된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13陵 가운데 유일하게 발굴된 陵인 “定陵”의 호화스럽고 웅장한 지하궁전의 건축과 그 출토품들을 볼 수 있었다.

◎ 中國學會와 交流協定을 체결하다

오후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는 中國電機工程學會의 公式 환영만찬회에 참석하였다.

北京 교외에 있는 昌平에 있는 북경공전국산하 Chang ping 工電局에 들러 喬海 국장실에서 인사 교환 후 잠시 담소를 나누고 우리학회 대표단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자리인 北京 昌平에 있는 최고급 관광호텔, 쇼핑센터인 宮廷大酒店 호텔에서 특별히 그곳 사장으로 부터 현관 Hall, 계단, 각방마다 걸려있는 중국 최고, 최대의 서예가, 화가들의 작품을 관람하고 제1접견실에서 지난 7월에 우리 학회가 제안한 兩國 學會間의 交流 協定 調印式에 참석하였다. 우리學會에서는 이동호회장을 비롯 박상희 부회장, 진동신사무국장 3인이 참석하였고, 中國學會側에서는 Zhang Feng Xiang 회장을 비롯 Zhang Shao Xian 전력기업연합회장, Zhao Shuang Ju 북경공전국장, Huo Hong Lie 학회 부비서장, 喬海 북경창평공전국장, 북경창평공전국 京電實業

公司 Zhang Bao Run 사장 등 중국 대표단 8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동호회장과 中國 학회장은 양국 국기를 가운데 두고 ① 대표단 교류 ② 간행물 교환 ③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④ 업무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學術 및 技術交流協定書”에 서명함으로써 양국학회의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里程表를 남기게 되었다.

협정조인식이 끝난 후 연회장으로 옮긴 우리일행은 준비해간 간단한 선물 증정이 있었으며 중국 최대 최고의 정통궁중요리인 70여가지의 西太后 궁중요리를 들면서 兩國學會任員間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금후 더욱 협력을 두터이 할것을 다짐하며 아쉬운 석별을 나누고 호텔로 돌아왔다.

하루 더 묶어 가라는 그들의 간곡한 호의를 받아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바쁜 국내 일정상 다섯째날인 10월 24일(월) 아침 09:30 호텔을 출발하여 天津공항으로 향하였다. 이날도 역시 바쁜 公務中에도 Zhao Shuang Ju 北京工電局長이 친히 우리를 天津空港까지 배웅나와서 떠나는 시간까지 그들의 손님접대에 대한 세심한 면을 엿볼 수 있었고 우리 일행은 출국수속을 마치고 오후 1시출발 Asiana OZ 3165편으로 귀국하였다.

◎ 中國을 다녀와서

우리의 이번 中國 訪問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中國學會와의 交流協定을 체결함으로써 참으로 값진 성과를 얻고 돌아와서 다녀온 보람이 있었다.

우리가 초청제의를 받고 중국에 가는날까지 6번에 걸쳐 상호 서신교환이 있었는데 그들의 서신접수때마다 中國側의 발송일이 전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었고, 또한 書信내용에 中國에서의 숙박 호텔과 중국체류 일정, 교류협정에 대한 일인반구 information이 사전에 없었기에 우리는 中國에 가면서도 그저 배일에 쌓인 기분으로 궁금해 하면서 中國 땅에 도착해서야 만만디인 그들의 속마음을 알수가 있었다. 그들은 너무 서두르지 않고 걸음으로 나타내지도 않고 차분이 진정으로 자기들이 받은 만큼 잊지 않고 베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北京에 가서 그날 그날의 schedule을 접할 때 마다 또한 방문기간 우리일행의 이용차량으로 Benz 600

을 李東昊會長 전용으로 특별 배려하고 한국어 통역자를 준비하는 등 그들의 세심하고 따뜻한 환대와 배려에 새삼 고마움을 느꼈다. 우리도 지난 7월 그들을 초청하였을 때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편안히 접대하였는데 그들이 한국 방문기간 우리의 환대에 재삼 감사한다는 인사와 발전된 韓國의 눈부신 高度의 經濟成長과 科學技術發展, 국력의 신장된 모습, 활기에 넘치는 韓國人的 모습을 감명깊게 간직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중국에 돌아 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韓國人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꼈다. WTO로 全世界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국제화 개방화로 내닫고 있는 이시점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國際交流를 더욱 확대 발전시킴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21세기 先進國으로서의 한국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될 것으로 믿으며 며칠 안되는 짧은 방문기간 中國에 대해서 보고 느낀점을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北京은 최근 몇년간 깨끗해 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지난 90년 Asian game을 계기로 도로신설, 확장, 보수와 시가지정비, 최신고층빌딩신축, 환경개선 등 도시의 면모가 새롭게 근대화 되어가고 있고 최근에도 고가도로, 입체교차로 건설을 비롯 최신고층빌딩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 활기찬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자동차도 늘어 일부 도심구간은 정체 현상까지 생기고 있었다.

그런데 北京시내 곳곳의 도로에는 아직도 우마차, 자동차, 트롤리 Bus가 공존하여 달리고 있었으며, 車가 늘어나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아 여전히 市民의 발은 자전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북경시내의 도로에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설치 되어 있었으며, 특히 출퇴근시에는 자전거를 타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듯 타고가는 대열이 마치 홍수를 이루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북경은 자전거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다. 또한 아직 생활수준이 우리보다는 훨씬 못미치지 않지만 그들의 검소함을 엿볼 수 있었다.

짧은 기간이나마 진정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 중국전기학회 Zhang Feng Xiang 회장과 학회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막중한 公務中

인데도 中國에 도착해서 떠나는 날까지 매일같이 친히 우리일행을 불편없이 안내해준 北京工電局 Zhao Shuang Ju 局長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상냥하고 친절하게 방문기간 동안 통역으로 수고해준 Sony Beijing 사무소에 근무하는 金正淋양에게도 감사드린다.

◎ 中國電機工程學會 소개

끝으로 中國電機工程學會(Chinese Society for Electrical Engineering : CSEE)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中國電機工程學會는 1934년에 설립되어 금년으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였으며(우리학회는 1947년 7월 9일 설립되었다) 中國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기관의 하나로서 會員은 약 100,000여명으로 주로 전력회사, 대학, 관청, 철도, 금속, 원자력회사, 제조업등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고 27개의 전문위원회와 분과를 두고 있으며 전력시스템, 고전압기술, 대용량전기기, 초전도, 화력발전, 자성유체, 자동화 및 계산기응용, 계전보호, 환경보호 등의 전문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中國電機工程學會 밑에는 各市, 省 別로 別도 自治學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北京市電機工程學會, 天津市電機工程學會, 河北省, 山東省, 吉林省電機工程學會 등 中國 전역에 32개의 各省, 自治區, 직할시에 電機工程學會가 설치되어 있다. 學術刊行物로는 학술잡지인 "CSEE Report"와 영문지인 "Electricity"가 발간되고 있고, 매년 30여회의 세미나 개최와 2~3회의 국제심포지움이 열리고 있다. 國際交流는 CIGRE, IEEE, IEE,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파키스탄과 같은 외국의 학술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학회와는 금년도 양국학회 대표단 교류방문에 이어 지난 10월 23일 北京에서 兩國 交流協定을 체결한 바 있다.

中國電機工程學會의 본부(사무소)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 주소 : 中國 北京市 白廣路二條1號(No.1 Lane 2, Baiguang Road, Beijing 100761, China)
- 전화 : +861 3273322 ext.4373 or +861 3467176
- Fax : +861 3467176